



서귀포시는 서성로 일대 상습침수구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상습침수구간 서성로 피해 해소되나

성읍~수산 8.3km 구간 용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

서귀포시가 표선면 성읍에서 성산읍 수산을 잇는 서성로 상습침수구간에 대한 침수예방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이 일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10여년 전부터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인한 차량통행 위험과 일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해 온 서성로 일대 8.3km 구간에 대한 배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3월 발주해 오는 12월까지 진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6억원의 투입하는 용역은 침수원인 분석과 홍수유출해석을 진행하게 된다.

저류지나 하천이 없는 이 구간은 집중호우때 우수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도로 침수는 물론 일대 건물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7-10월에만 5차례에 걸쳐 시간당 80mm 이

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성산지역 농경지 16필지(8.7ha)와 승마장 2곳이 침수되고, 성읍지역에서도 상가 2곳과 농경지 5필지(0.5ha)가 피해를 입었다. 또 도로 침수로 지나던 차량이 방전되는 일도 잦아 위험을 초래하면서 정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과업수행자를 선정해 진행 중인 용역은 현재 과업구간에 대한 현장답사, 지형·강우 분석과 침수양상(집중호우시 우수유출 흐름 및 침수정도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마쳤고, 또 치수안전도 확보와 주변 민원 최소화,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얻어 최적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시행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허점투성이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개발구상·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주민 찬반 엇갈려 전문가들, 주거지역·녹지 조성 등 사업 전반 지적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이 대다수의 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8일 오후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보영 제주국제대 건축학과 교수는 “제주도가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해 택지를 공급하려는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 지역에 5000세대가 들어야 하는 거”라며 “항공기 소음에 따른 영향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측정할 뒤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활주주변에 1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능만 내는 것”이라며 “완충녹지 폭을 최소 30m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원과 녹지를 최소 15%이상 확보하는 등 녹지 및 열린 경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은 “공항진입광장이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광역환승센터 위치도 공청회와 의견이 맞지 않아야 한다. 정부·국회의원을 설득해 한국공항공사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광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역진은 구상단계에서 환기·수용방식

등 사업방식이나 이주방식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급단계부터 수용방식과 이주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도 “일도2등 규모의 소규모 도시가 조성되는 것에도 최소한의 교통량 조사도 돼 있지 않다”면서 “하수처리 등 기초시설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업·숙박시설 등 지근거리에 있는 원도심·신제주 주변상권과의 충돌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합이란 말로 뭉뜨려 개발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일부에서는 제2공항 계획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시점에 현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추후 제2공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에 반발했다. 일부 주민이 큰소리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공청회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임차인이라고 밝힌 공해경계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없애고 광역환승센터 설치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광역환승센터 확장하면서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며 “문제인 정부의 정책기조는 ‘있는 마을 살리기’다. 산지전 복원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신도시 개발이냐 엇박자다. 개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른 한 주민도 “기본구상안 내용에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도 포함돼 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있느냐. 아무도 없다”며 “작년 설명회 때 주민협의체도 구상한다고 했는데 누가 참여했냐”며 주민과의 소통문제를 꺼내들었다.

반면 오대종 월성마을 마을회장은 “재산권 행사 제한, 비산먼지·소음·냄새·교통혼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한 뒤 개발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항 주변 마을주민들은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으며 개발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개발 찬성 의견을 전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18일 오후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희만기자

元-文 가족묘 조성 의혹 “둘 다 위법”

서귀포시, 이전명령 사전통지 허가없이 봉안시설·묘지 조성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방을 벌였던 가족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원희룡 지사 부친에게 ‘봉안시설 이전명령’을, 지난 12일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가족에게 ‘사설묘지 이전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원 지사의 부친은 지난 2016년 6월 서귀포시 섕대동 소재 타인 소유 토지에 있던 조상 분묘를 개장한 뒤 같은 장소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시설물을 조성했다. 분묘를 개장할 경우 분묘기지가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원 지사 인척 남급묘에 공유지 67㎡ 정도가 무단 점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원 지사 부친에게 변상금 8만1990원을 부과했다.

문 전 비서관 가족도 지난 2017년 9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당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제기 기간 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의제기 기간인 10일 뒤 이전명령을 내릴 계획으로, 이전명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묘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봉개매립장 재활용품 반입량 급증

올해 41t 반입... 처리량 초과 야간 운영으로 처리 ‘안간힘’

제주시 봉개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하루 처리가 가능한 반입량을 초과하면서 야적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8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 따르면, 2016년 31.6t이던 재활용품 1일 반입량은 2017년 37.3t, 2018년 41t 등으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면서 800여 t이 선별되지 못하고 야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선별장 야간 위탁을 통해 미선별 야적 재활용품 정량을 처리했다. 제주시는 이처럼 반입량 급증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재활용품의 처리가 완료돼 한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봉개 선별장은 제주시 동지역 발생 재활용품을 선별·분류하며 일평균 30여 t의 재활용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월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선별장의 야간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주·야간 할 것없이 처리에 안간힘을 쏟았다.

야간 민간위탁 시범운영은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야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반입량 대비 재활용품 선별 처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4·3길 조성

28일 ‘오라동 4·3길’ 개통

제주특별자치도는 4·3에 대한 역사교과서와 현장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라동 연미마을회관에서 오라동주민과 4·3유족, 관련단체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라동 4·3길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라동 4·3길은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라동은 4·3 초기부터 다양한 사건들로 유독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연미마을의 가옥들이 불타버렸다. 이를 계기로 진행중이던 평화협상이 결렬됐고 미군정이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라동 4·3길은 오라동 마을 관계자와 4·3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조성한 2개 코스로 구성됐다.

1코스는 총 6.5km로 연미 마을회관을 시점으로 12인의 유림들이 항일 의지를 굳힌 ‘조설대’와 1949년 군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된 ‘어우늘’, 월경사 등을 탐방할 수 있다. 2코스는 총 5.5km로 연미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제주도 기념물 2-7호의 오라지석묘와 1948년 소개령과 초토화 작전으로 불타버린 마을 ‘선달벵기’ 등을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오라동 4·3길이 제주시 도내 시군에 위치한 접과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 탐방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4·3길은 2015년 동광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의귀마을과 북촌마을, 2017년 금악마을과 가시마을까지 총 5개가 조성됐다. 올 6월기준 1만 6000여명 이상의 탐방객이 4·3길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채해원기자

제주상품의 중화권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중국 온라인몰 입점 참가업체 모집 공고

도내 수출기업의 중화권 시장 개척 및 현지 온라인 판매 진출 확대를 위하여 ‘글로벌 온라인마켓(중화권)제주상품 입점지원사업, 전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참가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7.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글로벌 온라인마켓(중화권)제주상품 입점 지원사업
- 모집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제품이 중국 현지 정식 수출되어 유통되고 있는 이머용용품 및 공산품, 농수산물, 식품
 - * 화장품 위생용품 및 식품위생용품 등 특하고 판매유망하고 있는 제품
 - 중국 내 온라인몰을 통한 현지 소비자 대상 판매 가능 제품
 - 중국 현지 유통사(수입사, 대리판매상, 해외지사)와 온라인몰 운영 대행사와 협력 가능 업체
 - 온라인몰 입점·판매를 위한 상품 상세자료 제공 가능 업체
- 모집기간 : 7월 19일(목) ~ 7월 31일(화)
- 사업내용
 - 중화권 온라인몰 입점 판매를 통해 제주상품의 인지도 및 판매 확대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상품리스트업, 온라인 마케팅·판촉이벤트 및 CS 지원
- 신청방법
 - 첨부파일(신청서 및 불입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직인날인)
 - 진흥원 방문, E-Mail, 우편 등을 통한 접수
- 선정방법
 - 온라인몰 운영 대행업체에서 서류 검토 및 상품성, 가격, 배송관리, 온라인판매 가능 여부 등 평가·선정
- 제출서류
 - ① 참가신청서 및 품목설명서(원본)
 - ② 사업자 및 종의서(원본)
 -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 ④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제 납세증명서(원본)
 - ⑤ 17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 ⑥ 해외규격인증서(유명한 인증서 및 국내외 특허증)
 - ⑦ 외국어 홈페이지(카탈로그 등)
 - ⑧ 화장품 중국 위생용품, 식품위생용품 등 정상품 원료에 따른 현지유통 판매 증명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담당 : 기업통상부 이수현 대리
 - 연락처 : Tel 064)805-3336, Fax 064)751-3336, E-Mail : pekinkoo@naver.com

제주전통감물염색 시연회 및 4.3, 그 시절 전통음식 시연경진대회 개최공고

4.3희생자유족부녀회 창립10주년 기념 화해와 상생의 정신선양을 위한 제주전통 감물염색 시연회와 4.3그 시절 전통음식문화시연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생활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주전통 감물염색 (8월 17일 08:00~ 10:00)
- 제주전통 감물염색 방법 특강, 감물염색실습
2. 4.3 그 시절 전통음식시연, 경연대회 (10:30 ~ 14:00)
◆ 4.3 전래 전통음식 중 웰빙음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음식

○ 4.3전통음식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 출품음식명 | 이름 | 연락처 | 주소 |
|-------|----|-----|----|
| 레시피 | | | |

■ 전통음식 경진대회 신청서 접수기간 : 2018년 08월 10일 17:00까지

- 제출처: 63199 제주시 광양4길25-1.3층 제주4.3유족부녀회 사무실
- fax: (064)756-6679 / ojhtex@hanmail.net
- 문의전화 : (064)756-0500 / 010-2598-6113/ 010-8662-5742

◆ 서류심사 선정된 후보자는 08월 17일(금)10:00까지 출품음식 (5인분)을 전시하고 심사위원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야 함.
(수상 순위는 현장에서 발표하고 4.3미망인 위르면 행사때 시상함)

○ 일 시 : 2018년 08월 17일 (금)08:00~14:00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 잔디광장 (평화센터건물 서측)

2018. 07. 19.

제주 4.3 희생자유족 부녀회장 오 정 희

그랜드 보청기

연중무휴 상담 및 방문
여름 시즌 제주도내 배터리 최저가 판매
25,000원 → 15,000원에 판매

다양한 행사에 상품을 할인 전화 주심서~

- 보상판매 서비스
- 1+1(원플러스원 행사)
- 방문고객 기념품 증정
- 무료청력검사

보청기 A/S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